

신안군 “수선화 향기 따라 힐링여행 오세요”

‘섬 수선화 축제’ 3월 30일 개막해 4월 9일까지 개최

2.7km 재배단지 관람로 따라 13ha 면적 178만구 식재

신안군은 오는 3월 30일부터 4월 9일까지 수선화의 섬으로 유명한 지도읍 선도에서 ‘우리의 봄’이라는 주제로 ‘2023년 섬 수선화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7km에 이르는 수선화 재배단지 관람로를 따라 13ha의 면적에 178만구 수선화가 식재되어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축제는 지난해와 다르게 관람로 이외에도 “수선화 정원”과 “잔디광장”을 새로 조성하고 곳곳에 포토존과 쉼터를 설치하여 선도를 찾는 상춘객들에게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수선화 향기 따라 떠나는 힐링 여행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축제 기간에는 사전거로 선도 일주, 1년

뒤 받아보는 느림보 우체통, 세상에 하나뿐인 꽃팔찌 만들기, 꽃차 시음 등 체험 프로그램과 수선화꽃 화화전, 선도 사진전이 컴퓨터와 전시 부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수선화축제추진위원회에서는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수선화를 모티브로한 다양한 굿즈 상품과 화분도 판매할 계획이다.

선도로 가는 길은 배편을 이용해야 하며, 압해읍 가흥선착장에서 차도선으로 50여분이 소요된다.

신안군 관계자는 “축제기간 중 차량 없는 축제로 선도 수선화 꽃길 길가에 관광객의 동참을 부탁드리며, 축제기간 선박증편과 임시주차장을 확보하여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찾아오는 모든 관광객들이 “선도의 푸른 하늘과 바다와 어우러져 아름답게 핀 수선화 꽃길을 따라 걸으며 마

음에 위안을 얻고 노란 봄의 전령사 수선화 꽃내음을 맡으며 가족, 연인과 함께 힐링의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안=이덕주 기자



영광곳간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가게’ 221호점 현판식

영광군은 지난 9일 영광읍 영대로에 위치한 영광두레협동조합(대표 최봉희)에 영광곳간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가게 ‘221호점’ 현판을 전달하였다.

2006년부터 16년 동안 굴비 사업을 운영해 오면서 생선(보리굴비) 특유의 비린내를 잡는 건조 숙성으로 특허를 내는 등 현재까지 남다른 굴비 사랑으로 소임을 다 하고 있는 최봉희 대표의 그동안 받았던 사랑을 다시 우리 지역민들에게 돌려주고 싶어 기부처를 찾던 중 영광곳간을 알게 되었다면서 작은 금액이지만 위기 가정에 잘 쓰여졌으면 좋겠다고 기부 의사를 전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함평군, 배·사과 화상병 방제약제 공급

개화 전(3월 하순~4월 중순) 방제 총력 당부

함평군 농업기술센터가 배·사과 재배 농가에 화상병 예방을 위한 사전 방제 지도 및 방제약제 공급에 나섰다.

화상병은 국가검역 병해충으로 지정된 세균병으로, 사과나 배에 병이 발생하면 세균에 의해 잎, 줄기, 꽃 등이 불에 타 화상을 입은 듯한

증세를 보인다 고사한다. 군은 화상병 사전방제 의무화에 따라 3월 말까지 동계 방제를 실시하고, 4월부터 2회에 걸쳐 개화기 방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가에서는 약제 사용시 반드시 정량을 살포해야 하며, 약제 저항성 예방을 위해 동일 성분의 약제를 2회 이상 살포해선 안 된다. 또, 화상병 농가 신고제가 의무화됨에 따라

화상병 의심주 발견 시 대표전화(1833-8572)로 신고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전원원 사전 제거를 위해 4월 말까지 집중예찰을 실시하고, 현수막 등을 활용한 화상병 예방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영암군 “농식품업체 미래 밝힐 원-원 해법 찾는다”

영암특화농공단지 찾아 상생협력 논의

영암군은 지난 9일, 관내 4개 농식품 업체 대표와 상생 협력방안 논의를 통한 원-원 전략 수립을 위한 현장 방문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영암군의회 고화자 부의장과 영암특화농공단지 입주 기업인 「영암한호떡집」, 「해미푸드」, 「삼호 무화과 빵」과 쌀국수 제조 기계를 제작하는 「SG 엔지니어링」 대표 등이 참석해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농공단지 입주 농식품업체 간 영암 농식품 산업의 발전을 위한 대표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현장방문에 동행한 영암군의회 고화자 부의장은 “농식품업체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한 것이 사실이지만 업체 간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협력하면 영암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와 판매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오늘 현장방문을 계기로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더 좋은 상생 방안을 마련해나가지”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무안군, 봄맞이 해양쓰레기 일제수거 자율정화활동 실시

무안군은 봄철 해빙기를 맞아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어촌계, 어업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함해만 일대 12개 어촌계를 중심으로 바닷가와 항포구에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를 일제 수거하는 자율정화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정화활동은 해안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쓰레기 투기 방지 홍보 캠페인도 함께 실시되었다. 또한 조업을 시작하기 위한 어선 점검, 양식시설 정리, 어구 정비 등 여러 작업이 이루어지는 항·포구의 대청소도 동시에 이루어져 해양쓰레기 약 50톤가량을 수거했다.

김산 군수는 “바다는 우리 모두의 소중한 수산자원의 먹거리 터전으로 무엇보다도 지역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어촌계별로 자율정화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준 것에 깊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주기적인 자율정화활동으로 청정 무안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전국 유일 목포문학박람회 개최 준비 본격화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목포문학관, 원도심 일원 2021년 평가분석, 재방문 및 만족도 90% 이상 기대감 ↑



전국 최초 문학을 테마로 한 문학박람회가 올해 9월 개최를 확정하고 목포문학관과 원도심 일원에서 열린다.

목포시는 2023 목포문학박람회를 오는 9월 14일(목)부터 17일(일)까지 4일간 목포문학관

일대, 원도심 등 목포시 전역에서 문학을 테마로 한 전시, 행사, 공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김우진, 박화성, 차범석, 김현, 김진섭, 황현산, 최인훈 등 우리나라 문학의 큰 업적을 남긴 문학인이 태어나거나 성장하고, 활동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장점을 키워 지난 2021년 문학을 주제로 한 전국 유일의 박람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13만여명이 다녀가면서 문학의 관광자원화 가능성 및 문학의 도시 목포라는 브랜드를 확보하는 등 목포의 이미지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 2회째를 맞는 목포문학박람회는 민선 8기 청년이 찾는 큰 목포 시정 방향에 맞춰 청년·신진작가를 주테마로 다양한 문학 프로그램

를 운영한다.

독립서점·출판협회·문학창입 등 문학산업과 연계하고, 전국단위 대규모 문학대회 개최, 목포문학관을 중심으로 디지털문학 콘텐츠 체험·전시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문학과 목포의 풍부한 문화유산과 연계한 목포 문학관광상품과 MZ세대·가족단위·학생 등을 주타겟으로 한 디지털 문학콘텐츠, 나만의 책방 만들기 등 참여·체험형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찾고 싶은 문학도시 목포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시는 3월 중 자문단 및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 목포문학박람회 기본계획을 확정함으로써 박람회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바차를 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문학을 테마로 전국 유일 목포 문학박람회인 만큼 다시 찾고 싶은 문학박람회로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다. 올해에는 더욱 알차고 내실있는 프로그램으로 문학박람회가 국내 최대 문학행사, 문학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목포=기동희재본부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